



콜로키움

지역사회 10년의 비전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해외 지역개발기관

운영과 활동

2016. 12. 14. (수) 14:30~17:00

청년허브 다목적홀 '활력'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특별시

목 차

주발표

해외 지역사회개발기관 사례와 시사점

김 창 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토론1

성북 도시재생지역의 지역관리기업 구상

박 학 룡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토론2

해외 지역개발기관 국내 적용시 유의사항

강 민 수 콤비즈협동조합 대표

토론3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역개발

박 용 수 광진구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단장

참고자료

캐나다 퀘벡의 지역개발지원조직 리포트

씨닷

콜로키움

해외 지역개발기관 운영과 활동

주발표

해외 지역사회개발기관 사례와 시사점

김 창 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I. 지역사회개발의 정의, 목표, 방법

1.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의 정의

-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침체된(또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개되는 포괄적인 실행 전략.
- 지역 내부자원 + 외부자원(사람, 재정, 기술적 전문 지식, 부동산)을 조화롭게 운용하여, 지역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 새롭고 확장된 사업 시행,
 - 전문화된 조직들의 설립, 운영동력 제공 목적

2. 지역사회개발의 접근방법

2.1 전통적 접근

- 위/외부로부터 일방적 자원 투입
- 물리적 환경, 토목 사업 위주
- 특정 개인/소수에게 자원(자본, 권력) 접근 특혜 부여
 - 원주민/빈민 추방 효과 (“개발할수록 가난해진다”는 역설)
 - 국가(정부) 또는 대기업 주도로 자본 증식, 빈부격차 심화

2.2 혁신적 접근(사회·연대경제 방식 접근)

- 주민의 필요 충족하는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일자리 확보
- 지역민(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자원봉사자) 주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역생활(정치, 경제, 문화) 조건 확보
 - 민간/지역민 주도로 지역특성과 일자리 살리고,
지역공동체의 신뢰문화, 사회적 자본 육성 효과

3. 지역사회개발의 목표와 원칙

3.1 목표

- 지역사회 구성원들(주민 개인, 협동조합, 민간사업체)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그 사업의 성과인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사회 내부에 제공
- 공동체/지역수준의 내포적 발전 모델

3.2 원칙

- 지역사회 주민(개인)들과 그 공동체의 역량 강화
→ 사업 위주 한계 극복·보완할 교육 및 훈련 필요
- 활동가들: 정책 및 제도와 운동성의 긴장, 보완 관계 인식 필요

4. 지역사회개발 조직(법인) 형태의 다양성

- 협동조합/협동조합그룹
- 지역사회 개발회사
- 컨설팅회사
- 신용조합 중심

5. 지역개발 금융자원의 중요성

5.1 공공부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5.2 민간부문

- 신용조합, 사회연대(투자)기금

5.3 혼성기금

- 공공부문 + 민간부문

6. 함정과 역설

6.1 함정 : 전체 사회경제에서 보조적·2차적·종속적 영역 담당

- 국가의 공공부문, 공공서비스 철수 정당화
(→ 의도하지 않게 신자유주의 모델의 하위 동맹자 역할?)
- 지역주민들이 확보한 기존 혜택(성과)의 하향화
(→ 예컨대, 종사자 급여와 서비스의 질에서) 초래
→ 사회적 이중성과 배제를 강화하는 효과 발휘
→ 국가/공공부문의 사회보호 역할 강화 필요

6.2 역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

특히 문화예술과 접목된 지역사회 재생

→ 지역 주거비, 서비스비용 폭등

오히려 원주민, 지역재생 기여자들이 추방되는 현상,

→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법적-제도적 지원, 공공부문 부동산 제공 필요)

II. OECD와 유럽연합 : 지역사회개발 개념의 시기별 진화

초점(Focus)	수단(Tool)
1980년대 초	
제조 투자를 외부에서 지역으로 유치 해외/외국의 직접적인 투자 유치 물리적 하부구조 구축	대량 보조, 세금 혜택, 제조투자자들에게 대한 보조금지급 물리적 하부구조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저임금 인력 고용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공공 및 중앙집중형”
~1990년대 중반	
지역사회공동체 개발 (Community development) 장기 실업자의 재통합 (re-integration) 기존 지역사회 사업체의 보유, 보존, 성장 내부 재투자 유치의 지속적 강조, 그러나 주로 특정영역에 초점 맞춤.	실업상태 개개인 훈련 사회적 비용 완화 위해 사회경제 활용 자영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워크숍 중소기업 지원 및 훈련 창업 지원 “지역의 민간 및 공공활동가들의 증가로 추동 된 공공부문”
2000년대~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군 연성(soft) 하부구조 투자 인적자원 개발 민간분야의 공공재 투자 장려, 유도 삶의 질 개선 영역의 문화적 의미 부여	경제와 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전체적 전략 파트너십 삶의 질 향상 위해 사회경제 활용, 지역사회공동체 네트워킹과 협업 클러스터, 산업단지, 문화단지 지원 “수평적·수직적으로 조직화된 지역거버넌스”

III. 해외지역개발 사례

1. 미국의 지역사회개발회사(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1.1 의의 : 공공정책의 실험장, 시장경제의 촉진제, 시민의 발언권 표현

1.2 역사와 성격

- 초기에는 시민권과 반(反)빈곤 운동과 연관, 이후 대기업 중심 자선단체로 발전
- 1980년대 시민사회영역으로 발전 + 경제활동 기회 증대
CDC모델 급격하게 증가, 발전
- 외형적 개발 프로젝트 : 재정 지원, 사업 시작, 일자리 창출
- 빈곤층 대상, 지역사회공동체와 연관, 빈곤지역에 민간 투자 촉진

1.3 활동 지역

- 대부분 5만 이상의 도시지역, 일부는 농촌에서도 활동
- 보스턴, 클리블랜드,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DC...
- 1999년 통계 : 3,600개의 CDC, 55만호의 주택 공급, 20억 달러 대출, 6만 개의 사업, 4,7000개의 일자리 창출.

1.4 클리블랜드(Cleveland) 사례

·역사지구 개발회사 HGNC(Historic Gateway Neighborhood Corporation)

- 1988년, 지역주민+지역 건물주+상인+임대인들이 모여
East Fourth Street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 출발.
- HGNC를 통해 창업, 기술지원, 경제개발 등 현재까지 총 5억 달러 규모 지역개발 투자가 이루어짐. 특히 역사지구 보전 + 엔터테인먼트 요소 결합하는 프로젝트 활발.
- 이 경험을 바탕으로 Heritage Ohio Main Street Program 시작.
호텔, 레스토랑,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2,500명 이상의 지역 주민 참여
- 도심지 개발기금Downtown Predevelopment Fund
주변의 5개 CDC가 함께 조성한 펀드, 클리블랜드 기금Cleveland Foundation과 매칭, 도심지 발전 위해 사용.
최대 1만 달러 지원. 매칭펀드 받으려면 최소 50%이상 지역개발에 투자해야.
1층 상가에 비해 효용성 떨어지는 2층을 새롭게 개발, 숙박시설과 사무실로 개조
주차장 외관 정비, 유통업 일자리 만들기, 지역사회 공용 공간으로 기존 부동산 재정비
- 다운타운의 재정비 위해 건축, 디자인 지원, 재정비세 세금혜택

·매사추세츠주 지역개발협회MACDC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 1960년대부터 지역개발회사 설립 활발, 2003년 지역개발회사들의 연합회 결성
- 지역 특색 살리면서도 주 전체의 일자리 창출, 직업선택 기회 늘리고, 주민자산 증가, 지역경제 성장 위해 협력
- 2015년 한 해, 2397명 지역주민 참여, 2055호의 주택 정비 및 건설, 6680개의 일자리 만들고 보전, 2218개의 사업·창업지원·성장·유지에 도움, 72,896 가정에 경제·교육·주거·일자리·훈련 등 서비스 제공
- 8억 6천만 달러 규모(9천억 원 정도)의 민간, 공공 투자

* 특별 프로그램- CDC와 지역사회 보건 강화

- 2014년 HRIA(Health Resources in Action), MAPC(Metropolitan Area Planning Council)는 대규모 보건의료 효과 평가를 진행.
CDC의 역할이 단지 경제적인 부의 창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보고서 발표.
- CDC의 모든 활동 영역에 걸쳐 물질적, 사회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건강 기여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 모아짐.
- 2008년 경제위기에 집을 잃은 사람들, 정부가 방치, 경찰 방관 등으로 분노하고 이것이 정신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 보고
-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Urban Edge CDC, 트라우마를 겪은 지역주민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1.5 당면과제

- 규모 확대 필요성
- 너무 외형적 개발에 집중
- 지역사회 개발뿐만 아니라 내용적 구축(building)에 더 관심 가져야
- 메트로폴리탄 경제의 성장과 더 연결되어야(대상지역, 목표 집단의 협소함 극복)

2. 미국 농무부(USDA) 지역경제개발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

2.1 버지니아 가금류사육자 협동조합(VPGC)의 전환 지원 사례

- 2004년 버지니아의 칠면조 생산농가들이 폐쇄 예정이던 〈Pilgrim's Pride Corporation〉(주식회사)을 인수, 협동조합으로 전환
- 900명의 일자리 상실과 2억 달러 규모의 지역경제 손실 위기에서 벗어난 계기
- USDA, 협동조합개발 전문가 파견,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 제공
- 웨스트 버지니아주 및 로킹햄 카운티 공무원들, 주정부의 보조금 확보 지원
- 코뱅크(CoBank)와 팜 크레딧 시스템(Farm Credit System)의 재무 담당자들, 자금조달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 팜 크레딧, 버지니아 지점 통해 500만 달러 브릿지론 제공
- 코뱅크, 1200만 달러 여신한도 제공
- 농무부, 지역경제개발 대출 프로그램 통해 지역 전기협동조합에 800만 달러 보증 제공, 전기협동조합은 이것을 VPGC에 다시 대출

2.2 코뱅크(CoBank)-농업신용은행(Agricultural Credit Bank)

- 미국 전역에 100개 이상 지역 소유 팜 크레딧과 그 지점, 협동조합들에게 자금조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특히 농산업, 농촌지역 통신 및 에너지 시스템 등을 겨냥해 광범위하고 유연한 대출 프로그램 제공

3. 캐나다

3.1 캐나다의 미래 네트워크(CFNC, Community Futures Network of Canada)

- 조직 - 268개의 NPO로 구성됨
 - 활동 -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규모 사업 지원(대출, 사업 컨설팅, 교육, 마케팅 지원)
 - 단위 - 캐나다 전역 5개 그룹화(Atlantic, Quebec, Ontario, Western, Territory)
 - 자금 조달 - 연방정부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 지역별 주력 사업: 브리티시 콜럼비아 사례
 - 장애인 기업가 프로그램(EDP, Entrepreneurs with Disabilities Program)
- 외형적, 물리적 대규모 지역개발 프레임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제거 주력. 1997년 시작 이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특화 사업.
- 건강문제,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움. 단순한 자선의 수준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재생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

3.2 지역사회사업개발회사

(CBDC, Community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 주로 대서양연안(아틀란틱) 지역에서 수십 개소 운영
- 지역사업체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결정하고 이끌 수 있다는 모토.
- 중소규모 지역 사업 지원, 창업.
-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각종 비용이 드는 서비스 무료 제공 등으로 도움
- CBDC가 관여하는 사업에 제약 없으나, 대부분 자신들의 지역에서 진행하도록.
(부동산개발이나 개인, 사업자 회생 등은 사업영역이 아니다)

3.3 노바스코샤의 뉴돈 기업(New Dawn Enterprises) 사례

- 지역사회공동체에 뿌리 내린 중소기업
- 1976년, 노바 스코샤 지역 케이프 브레튼에 위치한 지역개발회사 설립
- 뉴돈은 우산조직, 산하에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보건의료·직업훈련에 특화한 여러 회사 거느려
- 1,200만 달러 이상 자산, 150명의 정규직원 고용
- 노동, 경영, 시장, 고정자산이 모두 지역사회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 기업 목표(정관)
 - : “케이프 브레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장”
- 잉여의 분배(정관)
 - : 개인적 이득으로 분배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사업 목적에 쓰여야

4. 퀘벡의 지역사회개발기관들

4.1 지역경제개발공사(CDEC), 지역개발센터(CLD)

1) CDEC(지역경제개발공사)

- 1980년대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민간 주도 지역경제개발 조직 설립
- 사업 : 경제적 취약계층 훈련 및 노동시장 통합, 빈곤지역 주거개발
- 재정 : 정부(연방, 주, 시정부) 지원, 고용 및 훈련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
- 몬트리올 남서부 지역사례(레조)

2) CLD(지역개발센터)

- 1996년, “경제와 고용 대표자회의”이후 주정부가 CDEC 사례 따라 설립
- 1998년, 퀘벡 전역에 약 120개 조직
- 주요 사업 :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 대규모 사업체 지원

- 거버넌스 : 법적으로는 독립적 결사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사회 구성(업계, 노조, 지역사회조직, 협동조합, 공공교육, 보건서비스, 지자체, 여성 조직 등)
- 재정 : 주정부, 시정부, 연대기금, 수익사업

3) 문제점과 한계

- CDEC와 CLD의 지역개발사업 중복 문제
- 재정 구조에서 거의 전적으로 공공부문(정부)에 의존
 - 정권 교체, 정책 변경에 따라 큰 영향 받아
- 실제로 2014년 정권교체(사회연대경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퀘벡당 물리치고 자유당 집권) 따라 2015년부터 공공정책 부정적으로 변화, 주정부 예산 중 시정부에 교부되는 예산 3억 달러 삭감.(몬트리올 시는 7500만 달러, 퀘벡 시는 2000만 달러 예산 삭감 당해)
- 이에 따라 여러 조직들이 사업 줄이거나 심지어 조직 자체 폐쇄 위기에 처해

4.2 지역개발 협동조합(CDR, Coopératives de développement régional)

1) 위상과 역할 : 지역사회개발 파트너로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퀘벡의 17개 행정구역 → 11개의 CDR 분포
- 그 자체 전문가 협동조합(연대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협동조합 설립 지원
 - 11개의 CDR 연합회, 지역기반 협동조합 부문으로 CQCM 가입

2) 역사

- 1974년 우타웨-로랑티드 지역에 첫 번째 CDR 설립
- 1980년대부터 퀘벡 전역에서 발전
- 1994년부터 CCQ에서 재정 지원(1백만 달러)
- 1995년부터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1백만 달러 지원금 추가)
(협동조합 설립, 일자리 창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1997년, 연대협동조합 공식 법적 인정 이후 노동자 협동조합 → 연대협동조합 전환

3) 조직과 예산

- 퀘벡 전체 비금융 부문 2,800개 협동조합 중 1,080개 조합 CDR 네트워크에 가입
- 개별 CDR마다 협동조합 전문가 10~20명이 근무
- CQCM(퀘벡협동조합·상호조합위원회)에 가입, Chantier(사회경제대책반)와 협력

- 예산의 75-80%는 주정부, 일부 사회연대기금과 파트너(지자체, 기업) 지원, 약간의 수혜자 부담, 조합원 출자
- 협동조합 설립 수-일자리 창출 수에 따라 인센티브

4) 주요 활동

- 협동조합 설립 지원(법령, 기술, 자문, 재정)
- 각종 회의, 포럼 등 개최로 지역사회 공동의 필요, 지역별 협력, 연대 모색
- 지역 협동조합의 대변, 홍보
 - 지역사회 각종 거버넌스(경제, 교육, 문화, 환경...) 참여
 -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

5) 일자리 성과

2004~06년, 160개 협동조합 설립 지원, 1,223개 일자리 창출
 2011년 기준 최근 3년, 327개 협동조합 설립 지원, 1,234개 일자리 창출
 2015-16년, 70개 신규조합 설립 지원, 238개 일자리 만들어

6) 구체적 사례: 가티노 지역(오타와 부근) 사례

- 대규모 우유협동조합이 철수한 지역에 주민들 주도로 새로운 사업체 조직 성공
 → 우파웨-로랑티드 CDR이 지원, 지역 협동조합 우유공장과 소비조합 조직

7) 최근의 변화

- 2016년 9월 연합회총회, 개별 CDR들이 CDRQ(Coopératives de développement régional du Québec)로 통합,
 - 연합회 본부 및 CQCM(퀘벡협동조합·상호조합위원회) 역할 더욱 커지고, 통합 서비스 제공 중점(법률, 행정, 재정 서비스)
- 11개 지점은 협동조합 창업 상담·지원 제공, 특히 기존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회생 등 활동
- 정권 교체 직후 주정부 지원예산 삭감(10%), 인센티브 삭감

4.3 퀘벡의 뽕-까밀 마을(Saint-Camille, "World Village")

- 셔브룩 시에서 30km 떨어진 시골마을
- 2006년 8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세계적 마을"로 명명한 찬사 기사

- 2000년대 농촌 지역개발 상징하는 퀘벡의 선도 모델
- 1980년대 이후 인구축소에 대응, “마을의 지속성” 위한 협동조합 결성
- 마을 지도자들, 내부자원 + 외부자원의 적극적 동원, 결합
 - 내부자원 : 주민 활동가들, 유헤 건물(잡화점, 교구목사관) 활용
 - 활동 본부, 문화센터, 마을역사관
 - 외부자원 : 셔브룩대학의 인터넷 교육과정, 〈퀘벡 농촌연대〉의 지지 및 정부의 〈농촌협약〉으로부터 금융지원
-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실행 :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발전 전략
 - 고령자와 학생들을 위한 음식배달 서비스(뽀뽀뜨 물랑)
 - 고령자 주택협동조합(라 꼬르베)
 - 채소판매 협동조합(라 끌레 드 샹)
 - 문화센터 활동
- 1990년대, 마을의 지속성 위한 인구유입 프로젝트 구상
 - 몬트리올과 셔브룩에서 새로운 거주자 유입 작전(귀촌 프로그램)
 - 2007년, 1~2 에이커의 땅이 딸린 농가 구입, 주거개발 프로젝트 실행

4.4 몬트리올 앵귀스 기술산업단지

- 1995년, 캐나다퍼시픽 철도회사 부지 개발 둘러싸고, 회사와 시민사회가 2년 동안 투쟁 끝에 그 절반을 사회경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나머지 절반은 철도회사가 주택단지로 개발)
- 현재 협동조합 및 여타 사업체 40여개 입주, 고용 2천여 명
- 부설 어린이집, 카페, 텃밭 운영

4.5 퀘벡의 사회연대기금

- 1983년, FTQ(퀘벡 최대 노조연합회), 연대기금 조성(현재 약 9조원 기금)
- 1996년, CSN(퀘벡 제2 노조연합회), 행동기금 조성(현재 약 1조원 기금)
- 기금설립 둘러싼 치열한 내부 논쟁, 주정부의 적극적 역할(입법, 초기자금 마련)
- 투자의 60%는 퀘벡 내 사업체에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중점
- 퀘벡 전체적으로 약 20개의 각종 사회투자기금 존재
- 데잘맹 금융그룹(협동조합은행)의 ‘연대경제금고’ 적극적 역할
- Chantier의 금융혁신 : ‘인내자본’- 사업체들에게 15년간 장기대출

5. 스페인의 발렌시아 협동조합그룹(GECV)

5.1 설립

- 1989년, El Grup Empresarial Cooperativ Valencia 설립
- 지역사회공동체 약 80개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동력 역할을 한 기존 민중금고 (Caixa Popular) 회원사에 기반, 그 발전적 진화 도모
- 공동비전과 자원공유, 공동 경제개발전략 추진하는, 연합체적 개발대행사 역할
- 1996년 11개 회원사(5개 노동자협동조합, 4개 혼합형, 1개 주식회사, 1개 협동조합 그룹), 결합자산 기준 700억 페세타(7억 캐나다 달러) 규모

5.2 그룹의 구성

GECV 그룹 구성 현황		
법인 형태	회사명	종목
노동자 협동조합 (5)	La Mediterranea	유리, 세라믹
	Florida	대학교
	Marti Sorolla	초등학교
	Grupo Audit	회계 및 경영 컨설팅
	Trymobel	가구공장
혼합형 (4) 고객과 노동자 공동투자 회사	Caixa Popular	신용조합(지역공동체 은행)
	Consum	소매점 체인
	Assecoop	보험회사
	Comismar	사회 서비스
노동자주주 주식회사	Foradia	40세 이상, 기계공구, 유지보수
주택개발그룹	Formedia	주택개발 협동조합, 1995년 출범

GECV의 연도별 경영 현황 추이				
구분	1989년	1993년	1995년	1996년
피고용자수 (명)	1,379	2,403	2,809	3,808
매출액 (백만 캐나다 달러)	154	477	590	716
순이익 (백만 캐나다 달러)	3	6	11.6	11

5.3 기본 운영 원칙

1. 자본 조성 : 어떤 순이익도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2. 임금 균등성 : 임금 격차는 3대1의 비율로 제한
3. 경영전문화 : 최고의 자질 갖춘 경영자 발굴, 선택해야
4. 기획 : 단기 및 장기 계획을 모두 준비해야
5. 경영진 통제권 : 경영진에게는 제대로 된 통제체계가 보장되어야

6. 공동책임 : 기업체의 모든 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장려
7. 의사표현 : 모든 구성원은 투표권 보유
8. 경영 개방성 : 장부와 출입문은 개방되어야
9. 경제적 협력 : 새로운 기업체의 개발·창업 위해 협동조합 간 협력은 무조건
10. 조직 원칙 : 직원 교육과 개발
11. 발전 철학 :
 - a) 지역사회공동체 발전의 수단으로서 협동조합 기업체의 진흥
 - b) 정치적 중립성
 - c) 윤리적 행동

IV. 해외 지역개발기관 활동의 시사점

1. 지역사회개발의 개념과 유형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다양하다.

- 물리적 환경 개선
-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정부/지자체 주도
- 지역사회 활동가/주민 주도
- 공공부문 + 민간의 혼성형태

2. 지역사회개발의 주체 또한 다양하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그룹 주도
- 신용조합이나 컨설팅/회계 회사 주도
- 지역사회(공동체) 개발 회사 주도
- 정부 주도

3. 어떤 경우든 주도자(들)의 지도력이 중요하다.

- 지도자 개인의 역량
- 지역사회의 신뢰도

4. 지역사회개발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려면 “교육”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주민교육-평생교육
- 교육과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사업으로 조직화 연계(캐나다 안티고니쉬 운동)

5. 지역개발사업에는 금융조달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용조합

·사회연대(투자)기금

·공공부문(정부) 예산 지원

→ 공공부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정권 교체에 따라 사업과 조직 자체까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6. 공공부문과 우호적 협력관계(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개발은 어떤 한 단체(조직)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참고 자료

김창진, 『퀘벡모델: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사회경제·공공정책』, 가을의아침, 2015
 그레그 맥레오드 지음, 이인우 옮김,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몬드라곤을 보는 또 다른 시각』,
 북돋움/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2
 조지 수사 외 역음, 김창진 외 옮김, 『협동조합의 딜레마』, 가을의아침, 2015

Noya A. & Clarence ed., *The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OECD, 2007
 von Hoffman A.,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Harvard University, December 2012, W12-6
 Steinbach, 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in US Civil Society", 2012
<http://communityfuturescanada.ca/?lang=en#blog>
<http://www.businessatlantic.ca/en/welcome/about>

콜로키움

해외 지역개발기관

운영과 활동

토론1

성북 도시재생지역의 지역관리기업 구상

박 학 룡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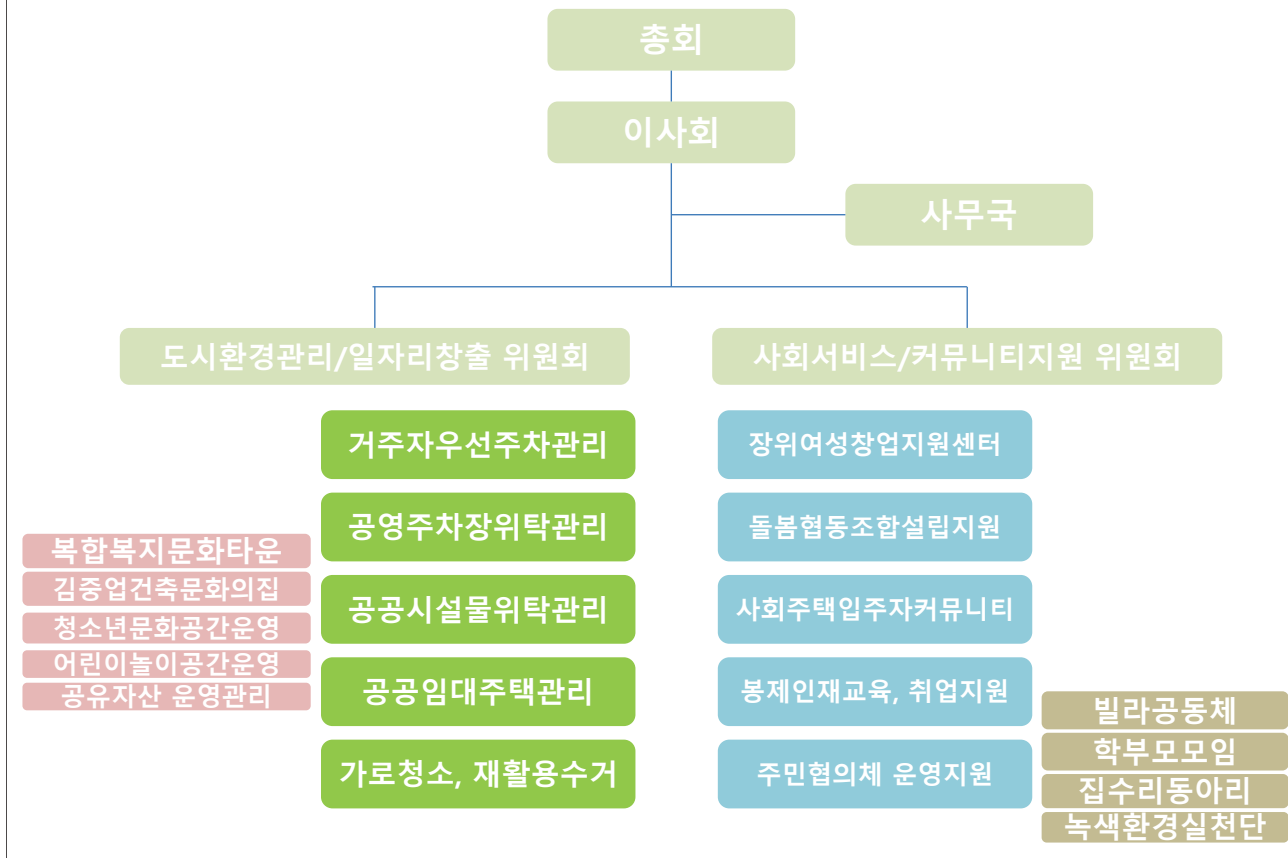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안)

목표	연번	마중물사업	연번	협력사업	연계 방안	
					구분	연계 내용
실기 좋은 주거환경	□	교통·보행환경 개선사업	□□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간연계	도로인물부 및 표면 포장 개선
	□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등 협력사업	□	노후포장도로 정비	공간연계	
	□	주민 안전·편의 도모사업	□	노후포장도로 정비	공간연계	
	□	유택 활성화 프로젝트	□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공간연계	CPTD디자인 개발 및 적용
	□	에너지절감 마을 조성	□□	학교복합에방디자인사업	공간연계	
소통하는 주민문화	□	복합 복지문화타운 조성	□	미니텃밭 조성	공간연계 교육연계	농부학교 및 텃밭교육 연계 친환경 농지재 및 텃밭재활용 시설 지원
	□	김종업 주택 문화예술거점 조성사업	□□	텃밭관리시설 확충		
	□	세대 문화공간 조성사업	□□	텃밭공동체 조성		
	□	마을재생학교 운영사업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간연계	어린이 놀이공간 및 활동 공유
	□□	공동체 발굴육성사업	□	통합그린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간연계	내부 시설 설치 지원
	□□	주민공모사업	□	노후 마을마당 정비	촉제연계	주민활동 및 촉제 연계
활력 있는 마을경제	□□	장곡시장 활성화 사업	□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인적연계	문화사업 관심 주민 연계
	□□	지역기반 창업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예비특구	창업연계	공목상권 활성화창업방안 연계
	□□	지역관리회사(CRC) 기반 조성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환경의 유지관리와 사회서비스의 지속을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필요

장위동 도시재생 지역관리기업(CRC) 조직도(안)



장위동 도시재생 지역관리기업(CRC) 추진 로드맵

1

~2017. 준비기

협동조합형 마을기업 설립
초기수익모델 구축

- ✓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 성북여성교실 위탁운영

조사된 지역 내 주민불편 사항을 기초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방향 도출

-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대행
- ✓ 집수리교실, 집수리 동아리
- ✓ 어린이 마을학교 시범운영

2

2018~2019. 수익사업 정착

거점공간,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공공재의 지역자산화 추구

- ✓ 복합복지문화타운 통합운영
- ✓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운영관리
- ✓ 청소년세대문화공간 운영관리

거점공간과 지역 내 유휴공간과 연결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 발굴

- ✓ 가로청소와 자원재활용 연계
- ✓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지원
- ✓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지원

3

2020~ 자립운영

공간자산운영, 사회주택 개발 등 사업영역확장
민간수익모델 개발로 자립기반 구축

- ✓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 ✓ 지역소상공인공동매장
- ✓ 사회주택 개발과 운영관리

공공분야 일감, 민간수주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 ✓ 주택관리와 개량사업 시행
- ✓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 ✓ 지역자산 개발과 운영관리

콜로키움

해외 지역개발기관 운영과 활동

토론 2

해외 지역개발기관 국내 적용시 유의사항

강민수 콤비즈협동조합 대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외 지역개발기관 국내 적용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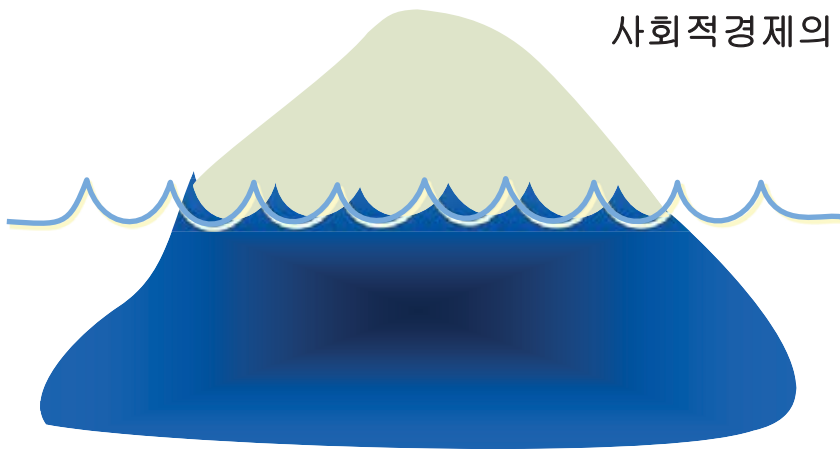


 **쿵비즈협동조합**

강민수(쿵비즈협동조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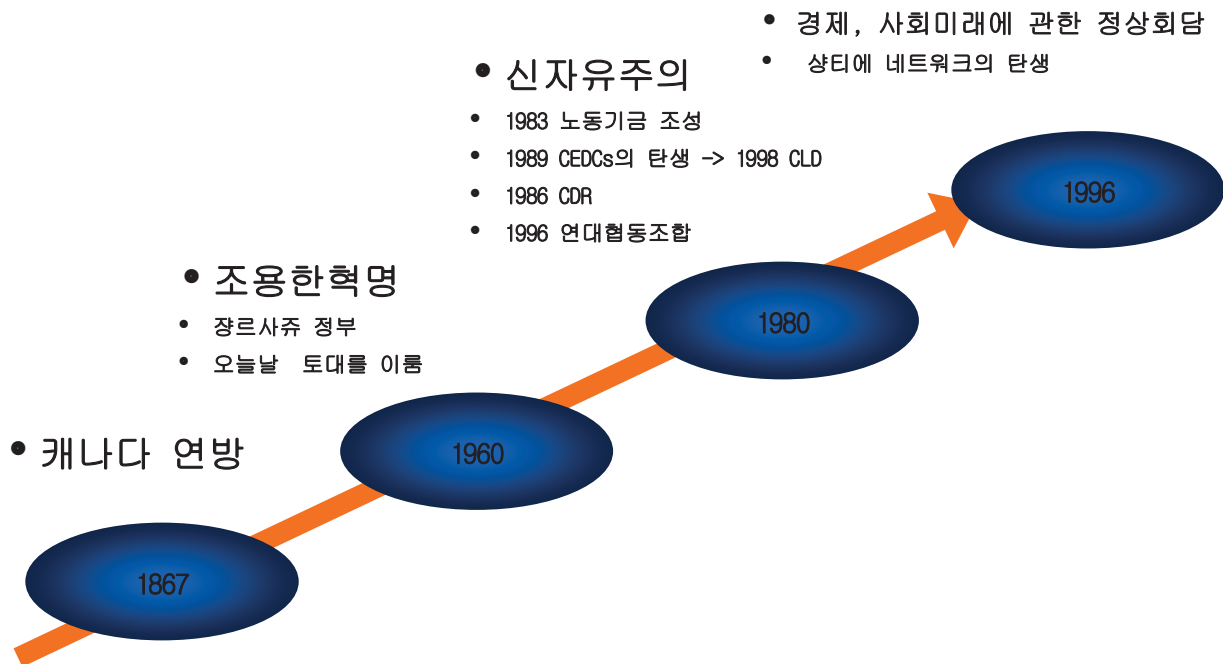
다른 사례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적경제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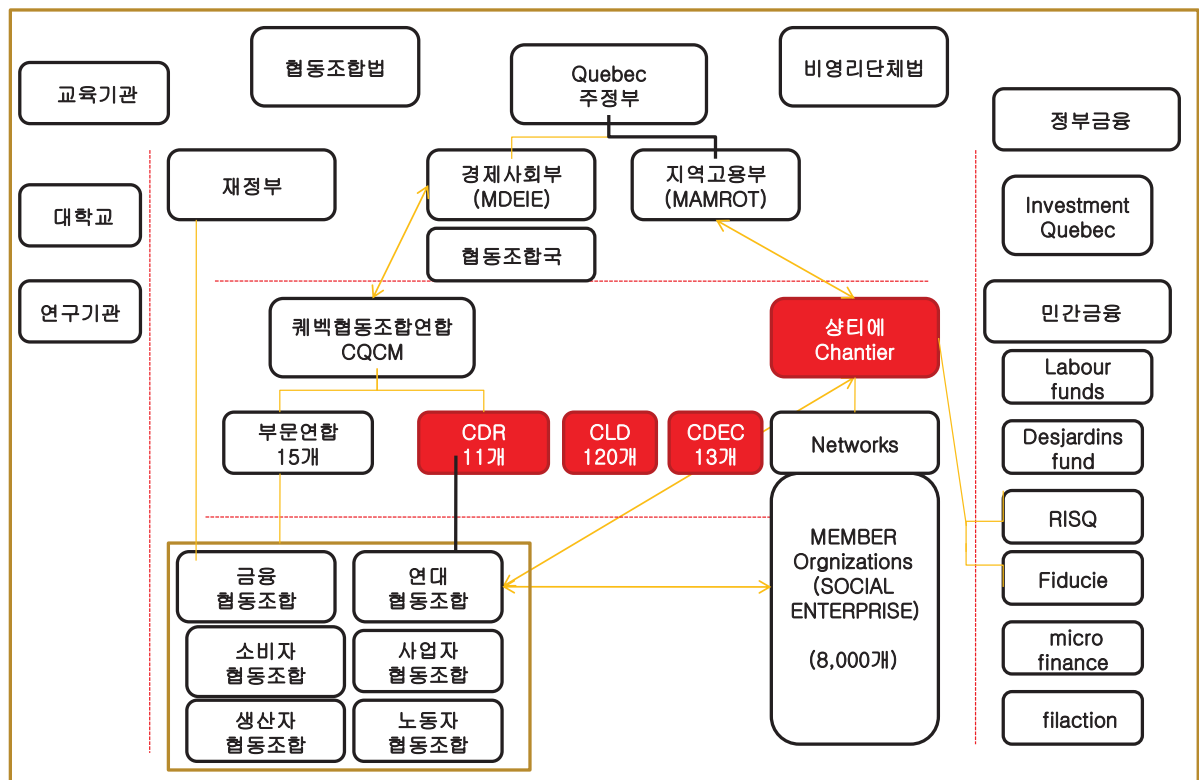


사례연구의 목적 : 그 사회가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역사적 맥락(제도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시사점을 얻는 데 있음.

캐나다 사회적경제의 역사



캐나다 사회적경제의 현재



캐나다 사회적경제의 성공요인

혁신적인 당사자 네트워크

- 샹티에, CEDCs, CLD, CDR
- 지역민의 실제적 필요가 사업으로 전환
- 이를 금융과 연계하는 혁신적 시스템

다양한 기금

- 노동운동, 협동조합금융에서 조성
- 2008년 금융위기 시 버퍼로 작용

협력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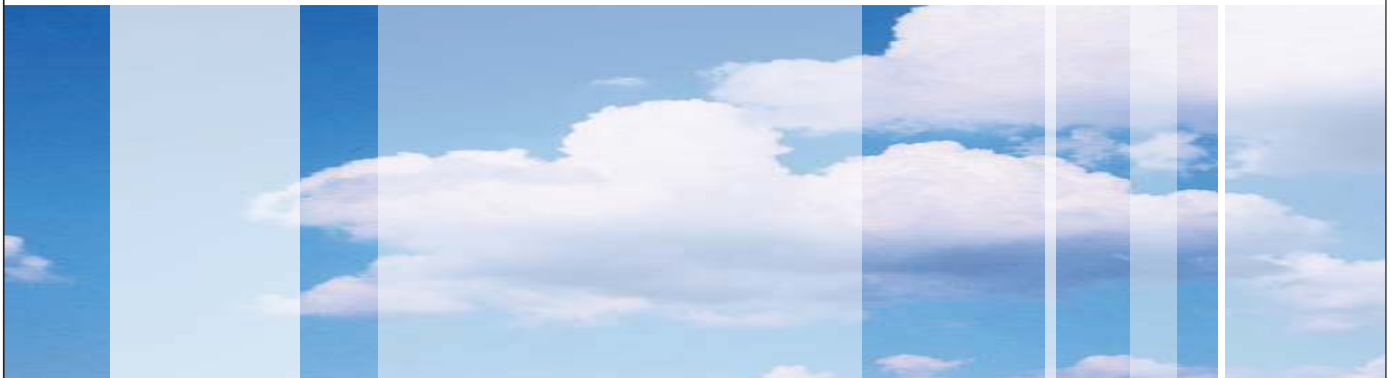
- 1996년 경제정상회의 성공적 경험
- 노동운동, 시민사회, 협동조합, 정부

독특한 역사적 배경

- 강한 분리주의적 전통
- 공동으로 대항하는 협력적 문화

감사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콜로키움

해외 지역개발기관

운영과 활동

토론 3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역개발

박 용 수 광진구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단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6. 12.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소개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자치구사회적경제협의회
- 네트워크형 사회적협동조합
- 연대의 경제로 지역경제공동체 실현
- 협동사회경제의 생태계 조성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지향
- 상호거래 및 협업을 촉진
- 자본보다 사람이, 이윤보다 지역 공동체 추구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소개 - 35개

광진담쟁이 협동조합	광진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주민연대
광진지역자활센터	광진 희망나르미 협동조합	건국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우리들 결혼 협동조합
늘푸른 되살림 협동조합 (자활기업)	늘푸른우리조합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라이트라이프
마을나루터	복지유니온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시니어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	인스케어 코어 (사회적기업)	정립전자 (사회적기업)	중곡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 (마을기업)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	텐먼스맘 (사회적기업)	한국광고시설물 협동조합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사회적기업)	한국전산협동조합	“함께누리” (협동조합)	행복중심 광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학습공동체 아카데미쿵	희망공장	희망을심는나무 (마을기업)	행복한교육실천 협동조합
화유플라워	해오름 사회적협동조합	21세기자막단 (사회적기업)	

3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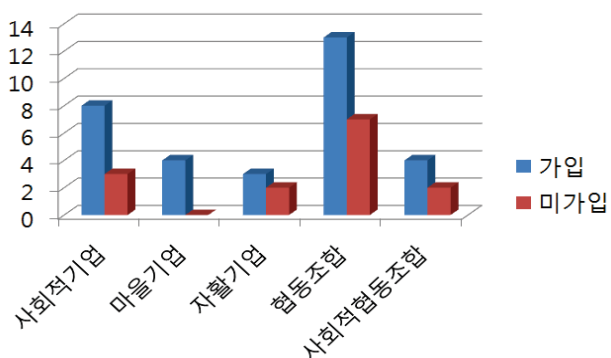


표1. 분류별 광사넷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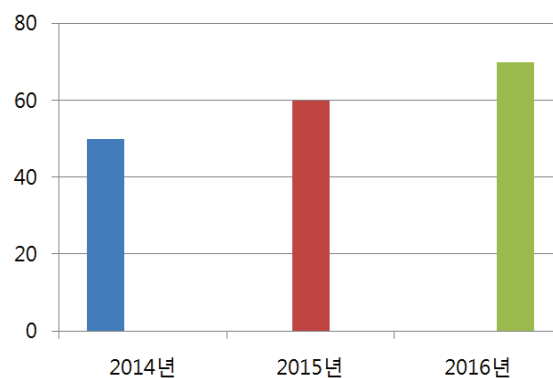


표2. 연도별 광사넷 가입현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계
가입현황	8/11	4/4	3/5	13/약 20	4/6	32/46
비율 (%)	73%	100%	60%	65%	67%	70%

회원사 총 종사자 656명; 조합원 및 회원 1,8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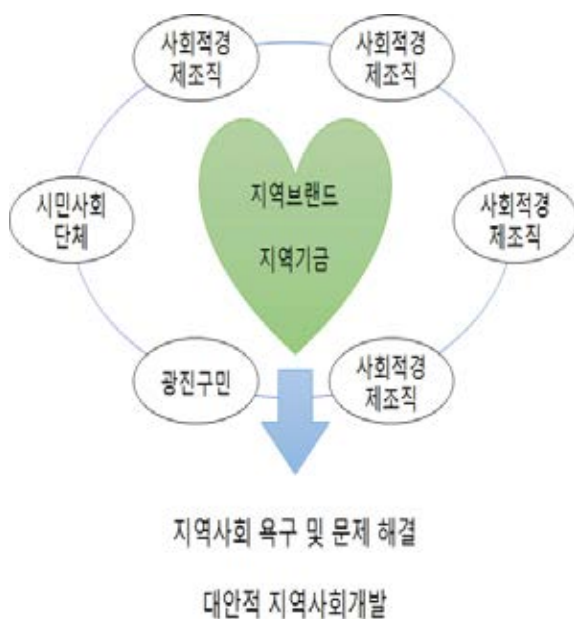
4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지역개발전략

- 지역개발 전략(지원단 포지셔닝) 1.
 -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와 역량강화
- 지역개발 전략(지원단 포지셔닝) 2.
 -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개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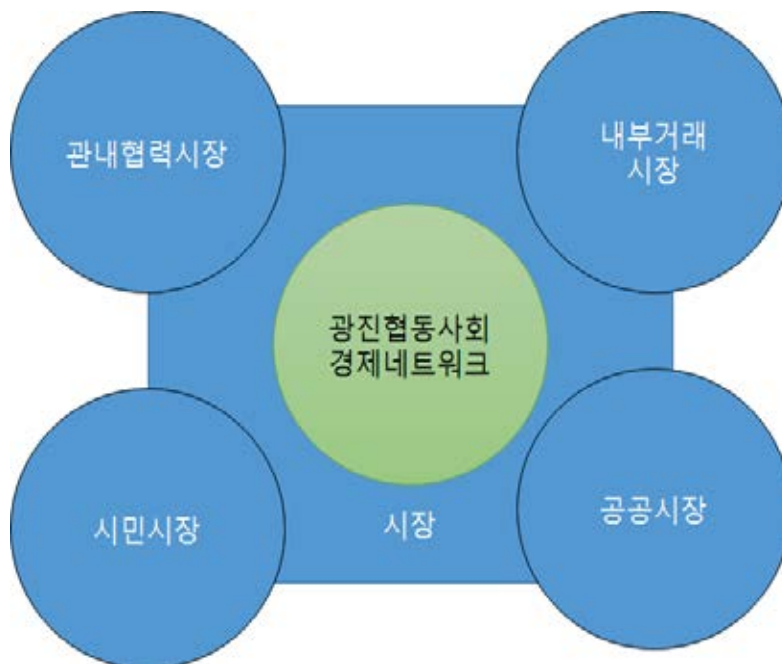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지역개발전략



-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 사회 기여, 사업 증진, 이미지 확산
 - 지역 브랜드는 일정한 지역사회공헌 기준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증 방식으로 사용토록 함
- 지역기금 조성
 - 사업개발을 위한 클라우드펀딩, 협력 사업 수익의 일부 적립 등
 -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내자금, 초기 창업시 인큐베이팅 자금 등으로 사용

6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지역개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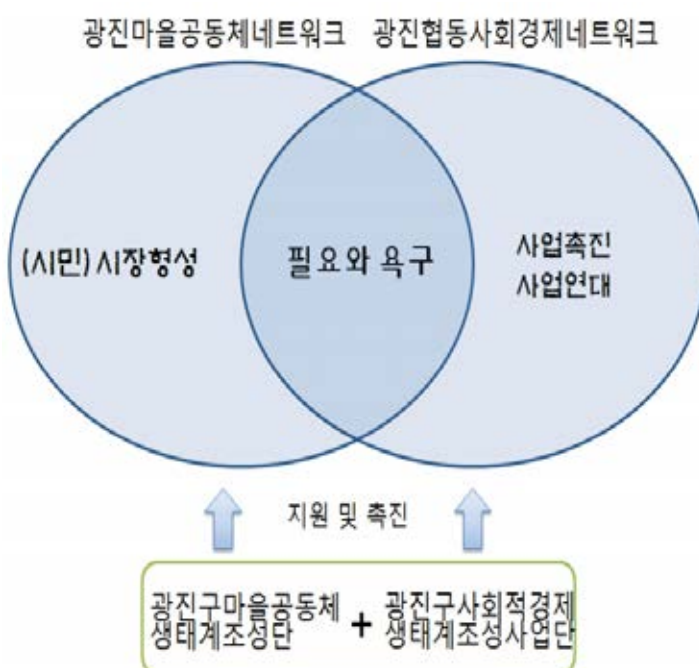


• 시장조성

- 공공시장 개발
- 시민(마을)시장 확대
- 공동매장 확대
- 관내업체 협력 확대
- 공공시장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7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지역개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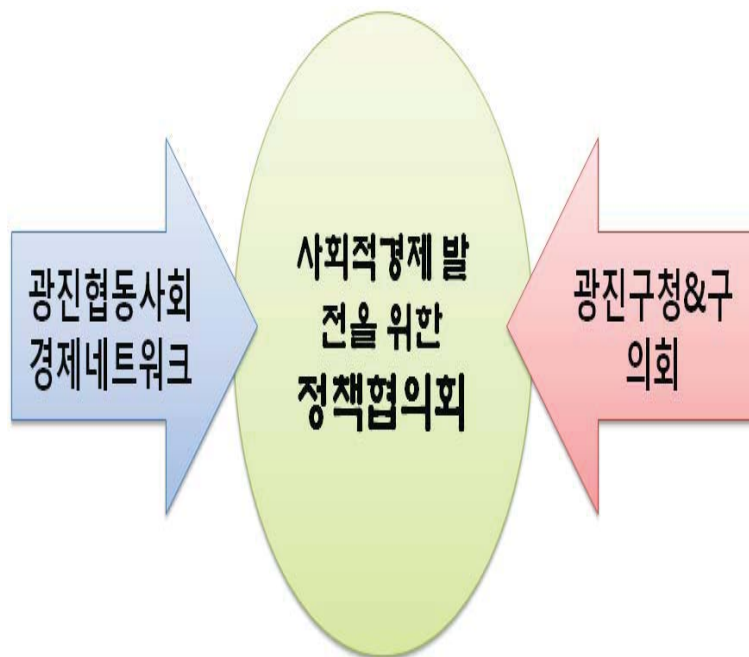


• 마을과 사회적경제 협력

- 마을공동체는 협동사회경제에 (시민)시장으로 역할
- 협동사회경제는 마을공동체에 사업촉진과 연대의 역할
- 상호협력을 통해 대안 사회를 만들어 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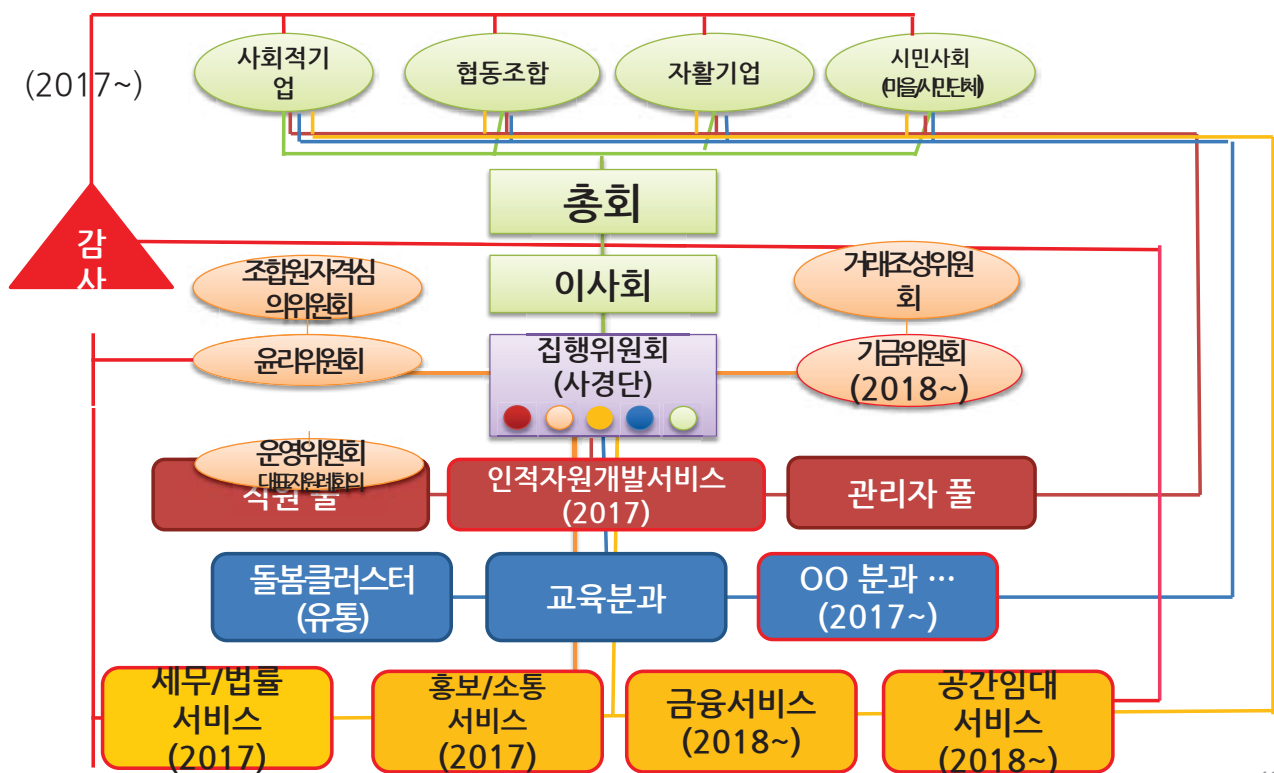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지역개발전략



- 정책협의회
 - 광진구청&광진구의회&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책협의회 구성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광진구정 전반과 사회적경제 10가지 공약 실행방안 협의 (구청장, 시의원4명, 구의원 6명이 협약함)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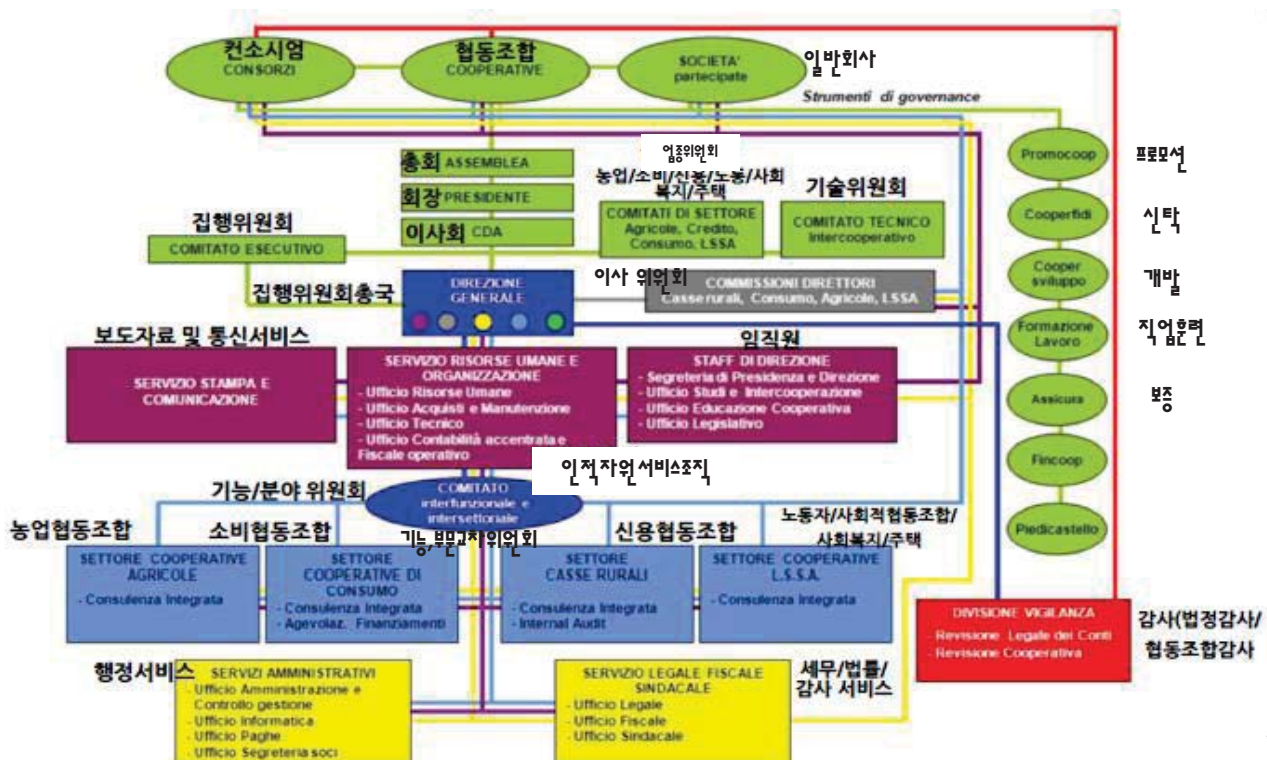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소개



10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소개

트렌토협동조합 연합회 조직도(비교모델)



콜로키움

해외 지역개발기관

운영과 활동

참고자료

캐나다 퀘벡의 지역개발지원조직 리포트

씨닷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목차

I. 본 리포트의 목적	----- 1
II. 퀘벡의 지역개발 지원조직의 발생 배경과 종류: CDEC, CDL, CDR을 중심으로	----- 3
III. 각 지역개발 지원조직 활동 개요	----- 4
IV. 각 지역개발 지원조직의 민관협력 현황	-----14
V. 최근의 퀘벡지역 정치적 지형에 따른 변화	-----16
참고자료	-----17

I. 본 리포트의 목적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시와 민간 영역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과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다. 특히 현장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서울시 자치구와 시 단위에서 민간 네트워크와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치구 단위에서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 통합지원센터 및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단이 조성되었고, 자원과 역량을 지역단위로 통합 및 연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를 위한 제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둘러싼 모두의 노력이 더욱 큰 결실을 맺기 위한 몇 가지 주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현장 조직들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와의 협력관계에 있어, 재정적인 의존도 및 위탁계약과 같은 구체적인 민관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 단위 및 자치구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들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협소한 역할을 넘어서 지역의 의제와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맥락에서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한 전략을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 11박 12일 동안 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연수단은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경제 지원 및 투자기관, 지역개발 지원기관 및 전략분야 사회적경제 현장조직들을 방문하였다. 캐나다 퀘벡 지역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풀뿌리 단위의 역량과 노력이 축적되어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이뤘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오늘날 퀘벡을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혁신사례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CDEC, CDR과 같은 지역기반 조직의 역할을 꼽는다.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낸 지역에서의 추동이 퀘벡의 사회적경제 운동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 역사와 현황은 지역기반의 거버넌스를 축으로 사회적경제를 포함하는 지역 발전 및 개발 이슈로의 활동 확장과 민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 퀘벡 지역의 지역개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지원조직들의 설립배경과 현황과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CDEC, CLD CDR은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적 상황에 따라 수행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운영, 재정 상황, 재정의 규모 및 지원 포트폴리오, 민관 파트너

십의 현황 등이 다르기에, 본 리포트에서는 위 조직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중심으로 위 항목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리포트가 서울시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자치구 및 시 레벨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및 통합지원센터의 앞으로의 활동범위와 민관 협력구조를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퀘벡의 지역개발 조직들과의 구체적인 거버넌스 및 최근의 정치적 변화가 퀘벡의 사회적경제 전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캐나다 유관 조직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긴다.

II. 캐나다 퀘벡의 지역개발 지원조직의 발생 배경과 종류

: CDEC, CLD, CDR을 중심으로

1960년대와 70년대 캐나다 내 편중된 지역 개발로 인해 산업화가 진행된 특정 도시에만 일자리가 집중되고, 농촌 지역에서의 발전은 더디었다. 이와 함께 1982-83년 캐나다를 휩쓴 경제 위기 이후, 농촌 지역의 실업률은 치솟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커뮤니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전략을 채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생겨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미국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몬트리올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경제 개발(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ED)’ 이니셔티브이다. 곧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선두에 있던 퀘벡의 경험은 다른 지역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퀘벡은 캐나다 내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민사회, 커뮤니티 활동가, 지식인들이 미국의 경험과 프랑스의 지역개발 이니셔티브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퀘벡만의 지역개발 논의들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조용한 혁명(Quite Revolution)’을 거치면서 보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이 진보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개발을 위한 논의와 실행이 풍부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불어권 인구가 겪어야했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립 경제를 구성해온 노력이 결합되면서 지역개발 활동은 더욱 구체성을 갖게 되었다. 아래에서 살펴볼 CDEC, CDR이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며, 퀘벡주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다.

1997년 정부가 CLD(the Centre Local de Développement)를 만든 배경에는 이미 1970년대와 80년대에 시작되어 지역 개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CDEC, CDR과 같은 조직들의 활동과 성과가 있었다. 정부가 지역개발 조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점차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며 중요한 경제적 도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1996년 ‘사회와 경제 서밋(the Social and Economic Summit)’을 계기로 주정부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1997년 퀘벡주 의회에서 기존의 전통적 기업 이외에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를 위한 재정적 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승인하였다. 이것은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지원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Ⅲ. 각 지역개발 지원조직 활동 개요

1. CDEC(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 지역경제개발공사)

1.1 배경

1982-83년 캐나다 경제위기 이후, 퀘벡주의 주요 산업을 이끌어가던 기업이 파산하였고 이 여파로 인해 몬트리올의 경제는 흔들리게 되었다. 실업률이 15%에서 30%까지 급증하였으며, 이자율은 20% 이상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토대가 급격히 취약해졌다. 이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은 경제 사회 발전을 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활동을 시작했고, 이러한 활동이 축적되어 CDEC를 설립하였다. ‘공동의 액션’이 지역경제 개발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가, 정치인, 노동조합, 커뮤니티 기관 등 영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주체들이 한데 모여, 실업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발적이고도 자조적인 협력과 거버넌스를 시작하였던 것이 CDEC의 설립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 CDEC의 활동은 샹티에 탄생의 기반이 되었다.

1.2 개요

CDEC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직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몬트리올 안에서도 낙후 지역인 서남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적 취약계층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위한 노동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CDEC의 성공적인 경험은 퀘벡정부가 ‘지역사회센터(CLD, Community Local Center)의 설립을 추진하게 하는 촉진제¹⁾가 되었다.

1985년에 처음으로 3개의 CDEC가 설립된 이래 2013년 기준, 13개의 CDEC가 퀘벡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초기 CDEC의 활동이 자리를 잡을 무렵, 먼저 퀘벡주 정부가, 그리고 곧 이어 연방정부가 CDEC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주체로 인식하면서 이들을 준 정부기관(Para-governmental organization) 지위로 인정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퀘벡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들에 대한 교육 및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CLD 및 샹티에(Chantier)와 파트너십을 맺고 낙후된 지역 사회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 목적과 활동내용

1) 1998년 이후 13개 중 9개가 CLD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출처: Yvon Poirier, *Loc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Canadian CED Network, <https://goo.gl/2AZwhj>)

CDEC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취업 기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 CDEC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적경제: 지역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 사업 서비스 제공: 장기적이고 양질의 이 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 (워크숍,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 강화 프로그램, 리서치 기회 배양 등)
- 고용 및 고용에 필요한 스킬 훈련: 취업률을 증가시키고, 이를 위해 실업자 및 취업자들의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여러 섹터 기관과 프로그램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이니셔티브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의 경영진, 기관, 단체들 간 연합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25년 간, 몬트리올 CDEC 네트워크는 각 지역의 문제(예: 빈곤 감소,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다양한 영역과 커뮤니티의 주체들이 집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였다. 주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리하고 실현하며, 지역 기업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기업 간 통합과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의 일자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CDEC는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가깝게 만나고 있다.

CDEC가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분산 지원이다.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100%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분을 지원하고 CDEC가 지원하는 것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참고사항으로 작용하여 외부 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다른 재원에 기초한 분산 지원의 개념은 CLD이 벤치마킹하여 실행하고 있다.

실제 CDEC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획기적인 것이 있지는 않다. 몬트리올 CDEC 중 하나인 CDEC La Salle Lachine을 방문했을 당시 연수단의 주요 피드백 또한 서울에서 비슷한 활동과 사업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CDEC의 핵심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발견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을 투여하고,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은 조건인 지역 내 자발적 참여와 복잡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1.4 거버넌스 및 구조

○ 총회

모든 CDEC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사업의 방향성과 활동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총회는 CDEC의 승인을 받은 구성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로 주요 구성원은 지역 기업, 금융기관, 커뮤니티와 문화단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지역주민이며, 구성은 지역 섹터의 활동과 지리적 분포를 반영한다.

○ 감사회

총회에서 감사회 감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섹터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 라운드테이블

CDEC가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방향성과 경향성이 결정되는 단위이다. 지역 차원의 논의에서는 지역을 위한 비즈니스 계획, 전국 단위의 노동시장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실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 라운드테이블의 성과를 실행하기 위한 섹터간의 실행 스케줄, 네트워크 간 협력을 엮어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이것이 시정부가 만든 전략 선언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노동시장과 사회경제적 개발에 대한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전략보고서를 만드는데 라운드테이블의 논의가 반영된다.

○ 회원

CDEC 회원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연관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례: RESO²⁾]

회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남서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남서부 지역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 남서부 지역을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RESO는 퀘벡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C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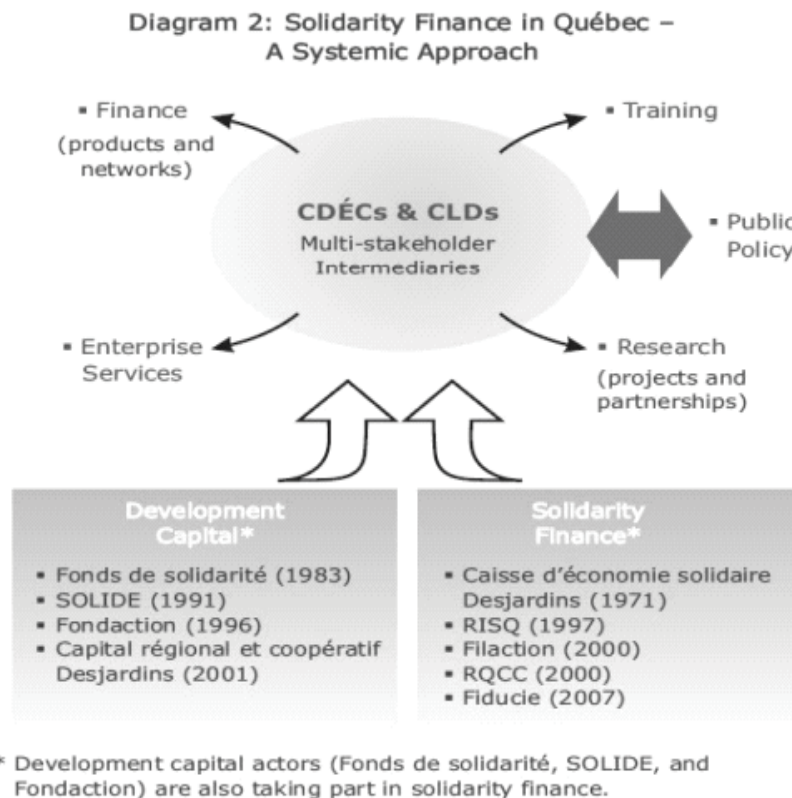
회비 구조

- 개인회원: 남서부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으로, 연 5\$의 회비를 납부
- 조직회원: 지역조직회원의 경우 연 15\$, 기업이나 기관 조직회원의 경우 연 25\$의 회비를 납부

출처: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 조사보고서 (2013.7) 충남발전연구원

1.5 재정

연방정부, 주정부, 몬트리올 시정부가 CDEC를 재정적으로 혼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은 주로 고용 및 고용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다.



출처: Marguerite Mendell, 2009, Financing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making waves volume 20, number3, p.47.

퀘벡주 및 몬트리올 시 정부의 펀드와 퀘벡의 발전기금 및 연대기금, 그 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CDEC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재정지원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1.6 정부와의 관계

행정적으로 CDEC는 정부와의 계약이나 위탁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이다. 단,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2. CLD(the Centre Local de Développement, 지역개발센터)

2.1 배경

1996년 정상회의에서 지역사회 내 CLD 출범을 결정하고, 1997년 연방정부가 퀘벡 주 정부에 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을 이관하면서 지역의 취업 프로그램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 때 ‘지역 취업센터(Local Employment Centres, CLEs)’와 ‘지역개발센터(Local Development Centres, CLDs)’가 설립되었다. CLD는 CDEC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지역 내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에 영감을 받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분권화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법령 34(Law34)’에 따라 지방정부 또는 시의 대행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다. 법적으로 독립 기관이나 성격상 공공(행정) 조직에 가깝다.

2.2 개요

CLD는 우리나라 식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조직이다. CLD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지역사회 투자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1998년 4월 이후 퀘벡주 내에 120개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상대적으로 CDEC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수의 CLD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몬트리올 지역에 18개의 CLD가 만들어졌으며, 총 18개 CLD 중 지역적으로 CDEC와 중복되어 관할하고 있는 9개에 대해서 CDEC가 CLD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 120개의 CLD가 지역사회의 관계 맺음하는 방식과 깊이는 지역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

2.3 목적과 활동 내용

1)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지원 활동

초기 CLD 활동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집합적 기업(비영리 기업)을 만들거나 집합적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회

3) CLD와 CDEC의 관계와 중복되는 역할에 대해서 별도 정리 (10p)

경제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직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CLD의 활동은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이를 확정 및 유지하며, 성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언,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금융지원⁴⁾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금 위원회 지원을 한다.

2) 활동의 우선순위

- 지역개발: 참여와 대화, 자원의 개발
- 경제적 유망분야 지원: 농업, 식품업, 예술문화기술, 제조업,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높은 수준의 정보 및 기술산업, 관광산업 등
- 기업가 지원: 창업육성, 기존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 사업 성공을 위한 지원 등

3) 투자지원

CLD는 지방정부가 출자한 2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지역투자펀드(Local Investment Fund)’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펀드(Social Economy Fund)’이다. 이 외에도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소액대출 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

CLD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은 분산지원/투자 방식이다. 창업, 사업확장, 사업유지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규모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원한다. CLD에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투자처가 지원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를 받는데 영향을 미친다.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해 시중은행, 연대기금, 데자르맹, 다양한 기금들과 함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4 거버넌스 및 구조

CLD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사회와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협회(Association) 또는 비영리조직이다. 주요 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는 구성원 또한 비즈니스, 노동조합, 커뮤니티 조직, 협동조합, 공공교육, 보건서비스, 지자체, 여성조직으로 다양하다, 이사회를 통해 선출되는 CLD 내 선출직의 수는 소수이다. CLD 법령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들은 CLD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지며, 따라서 법에 명시된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에 취해진다.

CLD가 독립된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특정 한 부처와 협력하

4) 상티에 기금인 피두시(Fiducie)와의 협력관계

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 다양한 정부부처들과 계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 내에서도 여러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다.

2.5 재정

CLD 관련법에 의거해 주정부와 시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초창기(1998-2003년) 사업을 위해 각각의 CLD는 유관 주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⁵⁾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때, 모든 재정적 지원은 퀘벡 주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CLD가 매년 발행하는 재정보고와 다른 보고서들은 지방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보고 체계를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기본적으로 CLD의 재정 구조는 CDEC와 유사하다. 퀘벡주 및 몬트리올 시 정부의 펀드와 퀘벡의 발전기금 및 연대기금, 그 외 수익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익사업은 CL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익과 기업대출 이자수익으로 구성된다.

■ CDEC와 CLD의 관계

CDEC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부는 CDEC의 두드러진 활동 성과와 지역에서 목격되는 긍정적 변화에 주목하였고, CDEC의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CLD를 탄생시켜 이를 대량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지원의 영역과 내용이 중복되고 CDEC 활동하던 기존 영역을 CLD가 특화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진행하자, 실제로 많은 수의 CDEC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CDEC와 CLD의 가장 큰 차이점은 CDEC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인 것에 비해 CLD는 정부 정책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CLD의 경우 정권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운영의 진폭이 크다. (재정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CDEC 또한 정권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CDEC가 지역의 경제적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접근한다면, CLD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설립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상 CDEC와 CLD 사이에 중복은 여전히 발생한다. 이에 CDEC는 초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교육과 상담, 기업 지원 등 지역의 경제적 복지 및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수행했으나, CLD의 등장 이후, 기업지원을 CLD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 또한 CDEC가 지역의 소규모의 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이거나 큰 규모

5) 2012년과 2014년 기간동안에는 3년 협약을 통해 78.5백만 달러가 120개 CLD에 지원되었다.

의 비즈니스 활동은 CLD가 하는 경우가 많다.

몬트리올 최초 CDEC인 RESO의 경우 CLD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두 기관은 지역에서 공동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중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공유하며 갈등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CDR과 CLD의 관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CDR과 CLD의 활동이 교차되지만, CDR의 경우 협동조합 관련 법률 지원과 가치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CLD는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마케팅이나 기업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나누고 있다.

3. CDR(Cooperative De Developpement Regional, 지역개발 협동조합)

3.1 설립 배경

캐나다 안에서 농촌 지역의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주민들 사이의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960-80년대 여러 부문이 통합되어 새로운 협동조합이 개발되었는데, 1974년-75년 사이에 ‘오타와 협동조합 위원회(Cooperative Council of Ottawa)’와 ‘사그네 라크 생 장(Saguenay Lac St-Jean) 간 지역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오늘날의 CDR이 탄생하였다. 1982년 당시 캐나다 정부가 1960-70년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인구이동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책의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 위주의 파트너십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CDR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3.2 개요

CDEC가 낙후된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었다면, CDR은 농촌지역 재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법률적으로는 협동조합, 역할 상으로는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다. CDR은 퀘벡에만 있는 특수한 조직으로 퀘벡주 17개 행정구역을 관할하기 위해 11개 CDR이 퀘벡 모든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협동조합과는 달리 지역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다른 단체의 협력하여 유연하게 실행어나가는 지원조직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혁신사례라 할 수 있다.

3.3 목적과 활동내용

CDR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창업초기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 연합
- 지역 내 협동조합을 대변하고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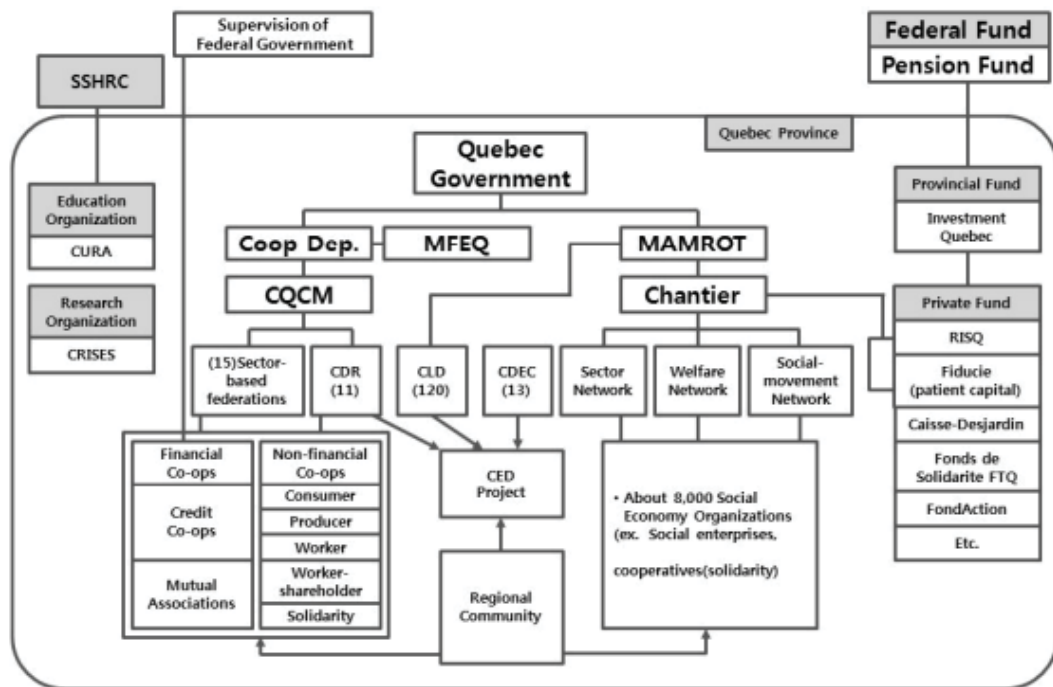
CDR은 협동조합 교육, 새로운 협동조합 이사회 구성, 책임 및 역할 교육, 협동조합 간 연계, 기존 협동조합의 근무조건 개선(사무실, 회계, 인력관리 지원 등), 협동조합을 위한 펀드 연계와 같이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간의 새로운 통합과 재조직 과정,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 협동조합을 위시한 사회적경제가 지역 안에서 순환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 및 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CDR을 구성하고 있다.

CDR 네트워크는 2013년 기준으로 1,100개 이상의 멤버를 확보하고 있다. 퀘벡 지역 1,200개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1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4 거버넌스 및 구조

CDR의 구조의 핵심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협동조합과 해당 지역에 있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멤버들로 구성된다. CDR을 통해 설립된 개별 협동조합들이 CDR의 주요 의사결정 당사자가 되는 구조이다.

외부적으로는 전통적인 협동조합 운동을 견지해온 CQCM과 두터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나, 개별 CDR에 따라 상티에, CLD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퀘벡 최초의 CDR인 CDR-CL(Quebecoise)은 CQCM의 재정지원과 함께 프로그램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CQCM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념과 가치,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의 이유로 상티에와 CLD와 밀접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전라북도(2012). '전북형 협동조합정책 모델 발굴을 위한 2012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 배낭연수 결과보고'. p34 일부수정

퀘벡주 정부의 '경제개발혁신수출부(MDEIE)'에 있는 협동조합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주정부와 협동조합 협의회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3.5 재정

퀘벡주 정부의 지원정책이 바뀌기 전, 지역별로 구성은 다르지만 전체 예산의 약 75%가 정부로부터 지원되었다. 나머지 금액은 퀘벡의 풍부한 사회적경제 기금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연대기금 혹은 여타의 파트너(시군구, 기업 등)에서 지원을 받았다. 퀘벡주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의 성격은 사업의 성과에 연동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3.6 정부와의 관계

1995년 퀘벡 정부가 CDR을 농촌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동조합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다. 이때의 지원방식은 CDR의 활동(커뮤니티에서의 참여, 새롭게 창출되거나 유지된 직업)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원금(Grant)의 성격이었다. 법적으로 지방정부 산하에 있지 않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지만 퀘벡주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과 유사하다.

IV. 각 지역개발 지원조직의 민관협력 현황

1. 민간 영역 내에서 폭넓게 협력하되, 노선과 활동 방향에 따라 전략적 선택

퀘벡은 중앙정부와 협동조합 연합체 혹은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해 온 협력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근간에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민간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운동이 자리잡고 있으며, 오늘날 CQCM(퀘벡협동조합연합)이라는 업종별 연맹으로 구성된 퀘벡주 협동조합의 대표조직과 샹티에(Chantier)라는 사회적경제 조직 협의체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조직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면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과 노선으로 인해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지역개발 관련 지원조직들의 민간 영역 내 협력관계는 오늘날 퀘벡의 사회적경제를 견인하는 이 두 조직 간의 암묵적인 긴장관계⁶⁾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퀘벡 지역의 협동조합은 1906년 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CQCM은 부문별 연맹과 CDR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다. 따라서 CDR은 자연스럽게 CQCM과 가깝게 협력하는 구조로 편제되었는데, 지역과 각 조직의 노선에 따라 협력의 주체를 CQCM과 샹티에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모습도 보인다. 대부분의 CDR이 사회적경제 운동의 맥락과 노선 상 기본적으로 CQCM과 협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샹티에와 협력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신규 협동조합 수요가 발생하면 지역 CDR이 샹티에를 통해 투자를 연결하는 등 지역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샹티에는 CDEC, CLD, CDR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샹티에의 투자 기금인 피두시(Fiducie)의 경우 신규 투자처를 CLD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전체 투자처의 50%가 CLD를 통해 발굴 및 개발된 프로젝트를 분석·평가하여 선정한다. CQCM이 협동조합으로 영역을 구분짓는 것에 반해,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폭넓게 열려있다는 평가를 받는 샹티에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조직들과 넓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책 제언 및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민간의 독립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운영과 사업을 전담하고 이에 따른 100% 예산 지원을 받는 것과는 달리, 위에서 살펴본 기관들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 위주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협약을 기반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전체 운영 및 사업예산에 있어 정부가 제공하

6) CQCM의 경우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형태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인데 반해, 샹티에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맞춰 사회적경제의 경계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노선의 차이는 두 조직 사이에 암묵적인 긴장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는 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외에 퀘벡의 풍부한 사회적경제 기금과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조달한다.

성과를 중심으로 하기에 퀘벡 다수의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오는 돈에 대해 보조금이 아닌 성과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활동 성과가 저조하다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이 이러한 조직들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던 기관들은 기존과 같은 수준의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V. 최근 퀘벡지역의 정치적 지형에 따른 지역개발조직 운영 및 거버넌스 변화

2014년 8월 퀘벡주의 집권당이 퀘벡당에서 퀘벡자유당으로 바뀌면서⁷⁾ 공공정책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퀘벡주 정부는 현재의 지역개발 조직 수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의 실제 수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분으로 사회적경제 및 지역개발 조직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2015년 퀘벡주 내 시정부에 교부되는 예산 중 3억 달러의 삭감 조치⁸⁾를 취하였다. 퀘벡주의 주요 사회적경제 도시인 몬트리올과 퀘벡시는 각각 7천 5백만 달러,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했고, 이 결과 지역개발 조직들의 운영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던 CDEC의 경우 많은 수가 지역의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투자활동을 없애고, 운영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경제 전략기획 연수단 방문 기관 중 하나였던 CDEC LaSalle-Lachine도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앞으로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다른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⁹⁾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었다. 이 경우에는 그나마 자구책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사례였고, 실제 몬트리올 내 CDEC 중에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¹⁰⁾. 이처럼 CDEC의 본래적 미션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보는 CDEC도 있으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노동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활동하거나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등 CDEC의 내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DEC LaSalle-Lachine의 운영변경 공지: 공동체경제 개발 관련 프로젝트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음을 알림

7) 퀘벡주의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야당인 자유당이 41.5%를 득표해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집권 퀘벡당(25.4%)을 꺾고 승리를 거두었다. (출처: 캐나다 퀘벡주 선거서 분리독립 반대 정당 승리, 2014. 4. 8., 연합뉴스)

8) <https://ccednet-rdec.ca/en/new-in-ced/2015/03/10/evolving-landscape-economic-development-quebec>

9) 동 라쎀(Lachine)의 재개발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과 관련하여 주민과 파트너를 컨설팅하는 조직으로 선정됨.

10) 2016년 9월 초 캐나다 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연수 방문 당시, 샹티에의 이야기에 따르면 CDEC Côte-des-Neiges와 Notre-Dame-de-Grâce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음.

CLD의 경우 55%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으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MRC(Municipalité Régionale du comté¹¹⁾)에 넘어가게 되었다. CLD의 지역 전문성을 고려해 지역 밀착형 활동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인력 감축을 통한 규모 축소가 이뤄졌다. 농촌 경제발전 관련 업무를 보던 직원과 비즈니스 전문가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성이 높아 유지되지만, 조직 운영인력에서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투자펀드(Local Investment Fund)’는 아무런 감축 없이 CLD에서 MRC로 이전되었다. 명확한 것은 몬트리올의 사회적경제는 위축될 것이고 재편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추후 공공정책의 변화가 사회적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상황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CCEDNet. (2008, October 1). Government Policies towards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and Manitoba.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s://ccednet-rcdec.ca/sites/ccednet-rcdec.ca/files/ccednet/Government_Policies_towards_CED_-_Loxley.pdf

CCEDNet. (2016, October 17). Local Development and Social Economy in Quebec.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s://ccednet-rcdec.ca/en/toolbox/local-development-and-social-economy-quebec>

CDEC-CSPMR. (2013, May). Mémoire sur la Loi sur l'économie sociale. Retrieved October 24, 2016, www.cdec-cspmr.org/tiki-download_file.php?fileId=660

Metropolis. (2014, October 28).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Organisations.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policytransfer.metropolis.org/case-studies/cdec-de-montreal.pdf>

Reliess. (2012, October). Loc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economy in urban Quebec - Community Development Economic Corporations (CDECs).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www.reliess.org/centredoc/upload/CDEC_va.pdf

Reliess. (2012, October). Loc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economy in rural Quebec - the National Rural Policy.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www.reliess.org/centredoc/upload/PNR_va.pdf

11) 퀘벡주 정부가 위임한 지방정부의 지역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Reliess. (2012, October). The Co-construction of Solidarity Finance in Quebec: a Systemic Approach.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www.reliess.org/centredoc/upload/FinanceQc_va.pdf

Reliess. (2013, March).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in the territories of Quebec; The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s (CDR).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base.socioeco.org/docs/cdren.pdf>

Reliess. (2014, October). Montreal: A Partnership For The Social Economy. Retrieved October 24, 2016.

SHAEABLE. (2015, September 21). Montreal's Blooming Social Economy Confronts Fiscal Pruning.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www.shareable.net/blog/montr%C3%A9als-blooming-social-economy-confronts-fiscal-pruning>

충남연구원. (2013, 8).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 조사보고서.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www.cni.re.kr/report/view.asp?id=SM&code=030700&sid=&page=&keyword1=&cd=6kUnLdP5qShF37S%2fuVVerw%3D%3D>

충남연구원. (2014, 2). 캐나다 퀘벡주, 지역 속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csec.or.kr/win/research/list.php?page=1&li_no=63&free_search=%EC%97%B4%EB%A6%B0%EC%B6%A9%EB%82%A8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적경제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 퀘벡 출장기. Retrieved October 24, 2016,

http://survey.kipa.re.kr/database/skin/doc.html?fn=FILE_0000000000107512&rs=/database/convert/result/201512/

● 참고사이트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http://www.chantier.qc.ca/>

CDEC de Quebec, <http://cdecdequebec.qc.ca/>

CDEC LaSalle-Lachine, <http://www.cdec-lasallelachine.ca/>

Cooperative De Developpement Regional, <http://www.cdrqa.coop/>